



Hana Market Weekly

# 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4. 12. 2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# 주간 달러/원 동향(11/25~11/29) 및 전망



## 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국과 유럽 간 성장 차이 부각되며 강달러 나타났으나 트럼프의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 지명에 미 재정 악화 우려가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환율은 소폭 상승 출발. 이어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규모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전환
- 중반,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에도 FOMC 의사록 내 새로운 매파적 언급 부재에 강달러 제한됨에 따라 추가 하락
- 후반, 한은의 예상 밖 금리인하 결정에도 외환당국이 보인 안정화 의지에 개입 경계감이 커지면서 재차 하락. 이어 주 후반, 미 금융시장의 추수감 사절 휴장으로 변동성 제한된 가운데 1390원대 중반에서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399.6	1407.5	1391.1	1394.7	-4.9

## 달러/원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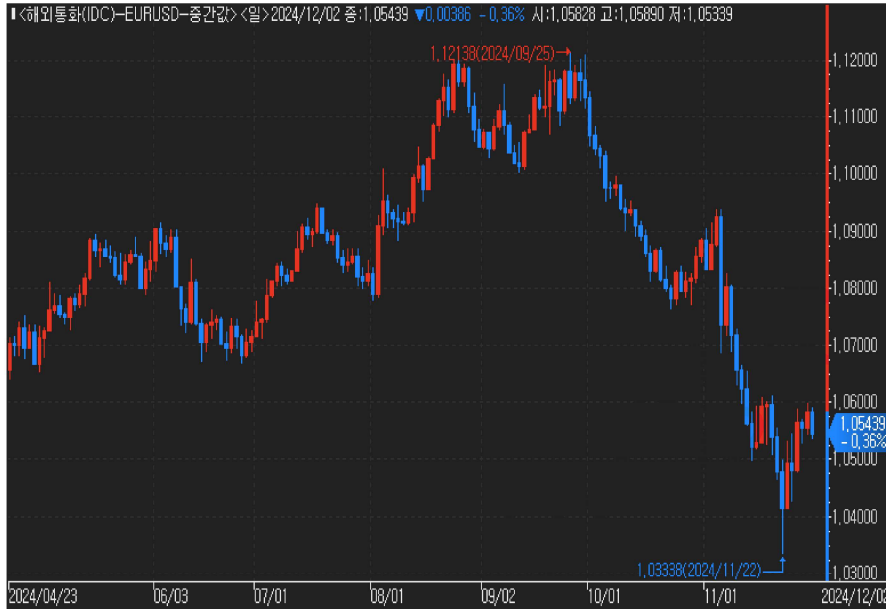
- BOJ 우에다 총재의 직접적인 추가 긴축 언급 등에 따른 엔화 강세가 조성된 측면이 달러 약세 흐름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원화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하지만, 국내 11월 수출 증가율 둔화 등 내수뿐 아니라 외수까지 이어지는 국면은 원화 강세 제약 요인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제조업 PMI 결과 등에 따른 위안화 방향성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

## 예상거래범위

1,390원 ~ 1,405원



# 엔·유로화 동향 (11/25~11/29)



## 유로화 동향

- 주초,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나 금리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요아힘 나겔 분데스뱅크 은행 총재의 발언에 유로화는 반등하며 출발. 이어 트럼프의 관세 위협 발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난 영향으로 약세를 시현
- 중반, 이자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가 빅컷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
- 후반, ECB 정책위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유로존 CPI가 2개월 연속 반등했다는 소식에 추가 강세를 보이며 1.05달러선에서 마감

## 엔화 동향

- 주초, 트럼프 차기 정부의 재무장관 후보로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하는 베센트가 지명되었다는 소식에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엔화는 강세 출발. 이어 이시바 일본 총리가 내년 총투에서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BOJ 금리인상에 영향에 미칠 것이란 전망에 강세 지속
- 중반, 시장 내 BOJ의 12월 추가 긴축 가능성이 재차 부상하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짐
- 후반, 도쿄 지역 물가 반등과 우에다 BOJ 총재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 금리인상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며 149엔대에서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415	1.0600	1.0425	1.0583	+0.016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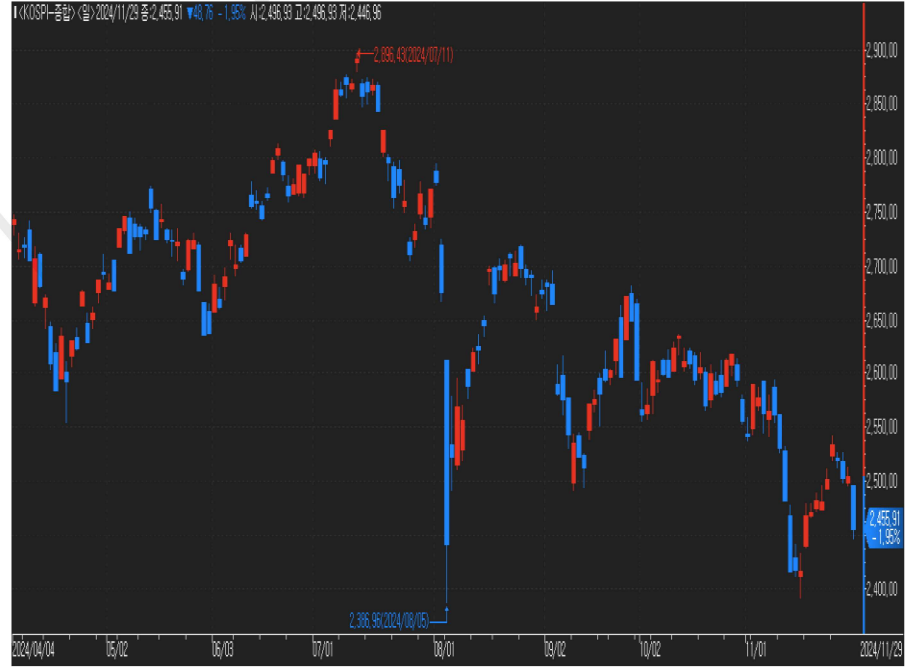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54.8	154.7	149.5	149.7	-5.1

#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11/25~11/29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트럼프 당선자가 미 재무장관에 월가에 다소 친화적 인물을 지명했다는 소식 속에 미국과 유로존의 국채금리가 급락한 영향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. 이어 국내 소비자심리지수가 미 대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, 수출 증가세 둔화 영향 등이 반영되며 낮아진 영향과 트럼프의 취임 후 멕시코, 캐나다에 대한 관세 행정명령 서명 소식 등의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반영되는 가운데 연속적인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하락 추세 지속
- 중반 들어, 미 10월 PCE를 대기하는 가운데 한은 금통위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 등으로 '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'
- 후반, 한은의 깜짝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을 소화하며 국고채 금리 급락 시현 후, 주 후반, 예상을 하회한 국고채 발행 계획과 추격 매수까지 더해지는 영향 등으로 하락세 유지하며 마감

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엔비디아로부터 삼성전자의 납품 방안 소식과 이차전지 종목들의 동반 강세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후반 외국인의 순매도 확대에 상승 폭 줄이는 모습 속에 코스피 출발. 이어 미국 관세정책 우려가 유입된 영향 반영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주요 대미 수출 국가들 증시가 일제히 하락 하는 양상 시현
- 중반 들어,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임에 따른 '트럼프 리스크'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며 2,500선 초반으로 재차 하락
- 후반 들어,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하 소식을 반영하며 상승흐름을 보인다, 성장 및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성장 둔화 인식으로 상승흐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권 흐름 보인 후, 주 후반,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와 반도체 보조금 관련 우려로 투자심리 악화된 영향 등으로 2% 가까이 급락한 2,450대에서 마감